

## 이슬람, 기독교인은 어떻게 볼 것인가?

Islam, how should we Christians see it?

이병수

고신대 (국제문화선교학과)

복지

1. 서론 | 253
2. 이슬람 포비아 | 253
3. 타종교인에 대한 케이프타운선언 | 254
4. 고린도전서 13장에 근거한 믿음·사랑·소망의 관점에서  
이슬람 보기 | 257
5. 무슬림의 조상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 259
6. 무슬림에 대한 거시적 접근 | 262
7. 우리의 반성과 성찰 | 265
  - 7.1. 무함마드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나? | 265
  - 7.2. 이슬람의 칼리프 시대 | 267
  - 7.3. 이슬람에 대한 오해 극복 | 269
    - 7.3.1. 이슬람에 대한 서구의 태도 | 269
    - 7.3.2. 이슬람의 종합과 과학적 성취 | 271
  - 7.4. 오스만 터키 | 275
8. 종교 연구 및 이슬람 연구소의 필요성 | 280
9. 무슬림에 대한 기독론적 선교 | 283
10. 결론 | 284

## 요약

## 이슬람, 기독교인은 어떻게 볼 것인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는 이슬람 혐오 및 이슬람 포비아 현상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대다수 일반인들은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가 아니라 ‘테러, 폭력과 전쟁의 종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수많은 서구인들은 서구와 이슬람의 오랜 피비린내 나는 십자군 전쟁을 포함한 전쟁의 역사 가운데 ‘이슬람이 문제다’라고 생각한다. 이슬람에 대한 오해와 무지와 편견 탓도 있지만 이슬람의 자업자득 측면도 있다. 하지만 백보 양보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무슬림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복음의 대상이다. 경계와 조심은 하되 무슬림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우리의 이웃이며 사랑의 대상이다. 이런 무슬림을 포함한 타종교인에 대한 입장이 케이프타운 선언에 잘 나타나 있다. 첫째,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슬림, 힌두교인, 불교인, 그리고 다른 종교의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 친구가 되지 못한 것을 회개한다. 예수님 영 안에서 우리는 솔선하여 타종교인들에게 사랑의 선의와 환대를 보여 줄 것이다”. 둘째,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타종교에 관한 거짓과 왜곡을 조장하는 행위를 거부하고 대중매체와 정치적 수사를 통해 인종차별적 편견과 중오와 공포를 일으키는 것을 고발하고 이에 저항한다”. 셋째, “우리는 평화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적인 공격을 당하는 경우에라도 타종교인들 대하는 모든 관계에서 폭력과 복수의 길을 거부한다”.

이 케이프 타운 선언이 이슬람 및 타종교인에 대한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태도에서 얼마나 균형 잡힌 자세를 보여주는지를 볼 수 있다. 이슬람 포비아가 가져다주는 현실적 유익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슬람에 대한 경계와 주의 및 그 위험성을 직시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무슬림 포비아 때문에 아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접근하는 것도 막아버리는 것은 엄청난 큰 잘못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설사 무슬림이 위험하고 무섭더라도 그들이 복음과 사랑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 속에라도 들어가는’ 위험을 불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은 주님의 고난과 희생과

섬김의 삶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리라. 필자는 이런 신학과 신앙에 기초해서 오늘날 이슬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 이슬람의 적대자 이미지, 이상적 이미지를 벗고 넘어서 이슬람의 실체적 이미지가 무엇이며 나아가 이슬람을 복음에 기초한 소망의 이미지로 우리가 이슬람을 보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Islam, how should we  
Christians see it?*

주요어

이슬람, 이슬람 혐오, 하나님의 형상, 이웃 사랑, 믿음 사랑 소망

**Abstract****Islam, how should we Christians see it?**

Prof. Dr. Byoungsoo Lee

For the Korean Church in the 21<sup>st</sup> century, Islam is one of the most difficult topics to understand. In South Korea Muslims more than 200,000 live and 6,000 Muslims live near Gimhae city, Islam is world-religion. The number of Muslims are rapidly world-widely. As of 2010, there were 1.6 billion Muslims around the world, representing 23% of all people worldwide. This makes Islam the world's second-largest religion. The number of Muslims around the world is projected to increase rapidly in the decades ahead, growing to nearly 2.8 billion in 2050. Muslims are expected to grow twice as fast as the overall global population. Consequently, Muslims are projected to rise from 23% of the world's population in 2010 to 30% in 2050. Looking to the future, the Asia-Pacific region is expected to remain the home of a majority of the world's Muslims. However, the share of the global Muslim population living in several Asian countries with large Muslim populations (such as Indonesia, India and Pakistan) is anticipated to decline between 2010 and 2050. While 62% of the world's Muslims lived in Asia and the Pacific in 2010, 53% are projected to live in the region in 2050. The Middle

East-North Africa region is predominantly Muslim, but as of 2010, only one-in-five Muslims lived in that part of the world. By 2050, about the same share of the global Muslim population is expected to live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20%). There are two major branches of Islam – Sunni and Shia. As of 2010, it was estimated that the overwhelming majority (87-90%) of Muslims were Sunnis; about 10-13% were Shia Muslims.

How we Christians see Islam? Islam is viewed as evil from some Christian perspective. It is seen as the religion of peace from others. But the author tries to see i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mage of God, the love toward the neighbourhood.

**Keywords** | Islam, Islam-Hate, the Image of God, Love of Neighbourhood, Faith, Hope and Love

## 1. 서론

2018년 봄 어느 학회에서 필자가 논문을 발표한 후 질의와 응답시간에 한 교수가 질문을 했다. 질문 내용은 필자의 발표 내용 중 무슬림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던 것이다. 그 교수는 불교도·힌두교도 및 유교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무슬림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그 질문에 대해 무슬림도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필자의 답변이었다.

이 질문을 받은 뒤 필자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신학 교수가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이 매우 놀랍기도 했다. 단지 그분 혼자만의 생각인지 이와 유사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더 계신지 궁금했다. 교수·목사들뿐만 아니라 평신도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많이 계신지 궁금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신학자, 목회자 및 평신도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필자는 최근 경험했다.

## 2. 이슬람 포비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는 이슬람 혐오 및 이슬람 포비아 현상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상 중의 하나가 혐오이다. 이 혐오에 대해서 여러 언론들이 심층 및 기획보도를 하고 있다. 특히 이슬람 혐오는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었다. 국제적의 최근의 사례는 2019년 3월 15일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의 모스크 2곳에서 일어난 극우 반 이슬람주의

총기난사 테러 사건으로 최소 5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례이다. 국내에서는 무슬림 여성의 허접을 벗기기 까지 한 사례도 있다. 국제법과 대한민국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다.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무슬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생각하는 윤리적 태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하다.

대다수 일반인들은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가 아니라 ‘테러, 폭력과 전쟁의 종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수많은 서구인들은 서구와 이슬람의 오랜 피비린내 나는 십자군 전쟁을 포함한 전쟁의 역사 가운데 ‘이슬람이 문제다’라고 생각한다. 이슬람에 대한 오해와 무지와 편견 탓도 있지만 이슬람의 자업자득 측면도 있다. 하지만 백보 양보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무슬림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복음의 대상이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경계와 조심은 하되 무슬림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우리의 이웃이며 사랑의 대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발표자는 논문을 존 스토프트와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중심으로 한 복음주의 세계선교회의 공식적인 신학 입장문인 2010 케이프 타운 선언<sup>1)</sup> 기초해서 진행할 것이다.

### 3. 타종교인에 대한 케이프타운선언

이런 무슬림을 포함한 타종교인에 대한 입장이 케이프타운 선언에 잘 나타나 있다<sup>2)</sup>. 첫째,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슬림, 힌두교인,

불교인, 그리고 다른 종교의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 친구가 되지 못한 것을 회개한다. 예수님 영 안에서 우리는 솔선하여 타종교인들에게 사랑의 선의와 환대를 보여 줄 것이다”.

둘째,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타종교에 관한 거짓과 왜곡을 조장하는 행위를 거부하고 대중매체와 정치적 수사를 통해 인종차별적 편견과 증오와 공포를 일으키는 것을 고발하고 이에 저항한다”.

셋째, “우리는 평화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적인 공격을 당하는 경우에라도 타종교인들 대하는 모든 관계에서 폭력과 복수의 길을 거부한다”.

위의 세 가지 내용은 그동안 우리가 이슬람에 대한 태도에서 일반적으로 보여주었던 관점에 대해 매우 비판적 입장을 취한다. 그 가운데 필자가 강조하는 무슬림도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리의 이웃’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타종교인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실천하기”<sup>3)</sup> 부분을 살펴보자.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은 타종교인들을 포함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타종교인들을 성경적 의미의 이웃으로 여기도록 요구하시는 중요한 부름에 응답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죄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보려고 노력할 뿐 아니라 그들의 이웃이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고자 한다.”<sup>4)</sup>

이 케이프 타운 선언이 이슬람 및 타종교인에 대한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태도에서 얼마나 균형 잡힌 자세를 보여주는가를 볼 수 있다. 이슬람 포비아가 가져다주는 현실적 유익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슬람에 대한 경계와

1) 한국로잔위원회, 『케이프타운선언서약』, (서울: IVP, 2014).

2) 한국로잔위원회, 『케이프타운선언서약』, 90.

3) 한국로잔위원회, 『케이프타운선언서약』, 91.

4) 한국로잔위원회, 『케이프타운선언서약』, 90.

주의 및 그 위험성을 직시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무슬림 포비아 때문에 아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접근하는 것도 막아버리는 것은 엄청난 큰 잘못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이다. 이 무슬림 포비아가 무엇보다도 잘못된 길로 오도하는 것은 이슬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역사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위대하고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복음의 절대적 능력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칼빈주의는 인간의 전적부패와 타락, 인간의 사악한 죄의 본성 및 성격을 누구보다도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직시하지만 그 인간의 죄악성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불가항력적 은총 및 성령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어떤 무슬림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성령으로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까지 이슬람 포비아 현상을 주도한 사람들은 이슬람 경계에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성을 놓치는 가운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실수’를 현실로 만들었던 것이다. 설사 무슬림이 위험하고 무섭더라도 그들이 복음과 사랑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 속에라도 들어가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은 주님의 고난과 회생과 섬김의 삶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리라. 여기서도 이런 관점에서 케이프타운 선언을 살펴보자<sup>5)</sup>.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선교에 참여할 때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구약의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기꺼이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의 선교가 참된 것임을 증명하는 명백한 표지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교를 진전시키기 위해 고난과 박해와 순교를 사용하기도 하신다. 순교는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귀중하게 여기겠다고 약속하신 증인됨의 한 방식이다. 편안하고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고난 받으라는 그분의 부르심에 다시 귀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많은 신자들이 적대적인 종교문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대가로 그러한 고난을 받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런 신학과 신앙에 기초해서 오늘날 이슬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 이슬람의 적대자 이미지, 이상적 이미지를 벗고 넘어서 이슬람의 실체적 이미지가 무엇이며 나아가 이슬람을 복음에 기초한 소망의 이미지<sup>6)</sup>로 살펴보자 한다.

#### 4. 고린도전서 13장에 근거한 믿음·사랑·소망의 관점에서 이슬람 보기

기독교 신학은 믿음·소망·사랑(고전 13장)에 근거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성을 믿고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의 원리이다. 이것이 타종교에 대한 자세와 태도에도 적용된다. 많은 기독인들이 이슬람을 거대한 골리앗으로 생각한다. 무슬림들을 선교하기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무서움과 두려움에 차 있다. 혐오라는 그리스어 포비아는 사실 두려움의 문자적 의미이다. 그것이 이슬람에 해당한다. 하지만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처럼 무슬림들에게 하나님의 전능성과 복음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의 능력, 소망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들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 조직신학자이며 종교학

5) 한국로잔위원회, 『케이프타운선언』, 92.

6) 필자는 한스 킹의 입장에 크게 의존한다.

자인 한스 킹은 이슬람을 믿음·사랑·소망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한스 킹은 그의 대저 <이슬람><sup>7)</sup>에서 이슬람에 대한 4가지 이미지를 설명한다. 첫째, 기독교의 이슬람에 대한 악마적 및 적대자 이미지<sup>8)</sup>, 둘째, 이슬람에 대한 예찬적·이상적 이미지<sup>9)</sup>, 셋째, 실제적 이미지<sup>10)</sup> 마지막으로 이슬람에 대한 희망의 이미지<sup>11)</sup>를 제시한다. 우리는 이슬람을 악마적으로 보아서도 안되고, 마치 매우 평화적인 종교인양 선한 것으로 보아서도 안 되고 그것에 대한 실제적 이미지를 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슬람에 대한 기독인의 입장은 비둘기같이 순결하되 뱀과 같이 지혜롭게 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슬림에 대한 우리의 시각은 단순히 이슬람을 악마적·이상적·현실적인 불가능한 것만의 시각으로 끝내는 것을 거부한다. 한스 킹은 이슬람을 위해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희망의 이미지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것은 성경적 가르침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가항력적 은혜로 무슬림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사랑, 그들도 주님께로 돌아와서 어린 양 예수께 예배하는 날이 오리라는 종말론적 소망과 희망(계7:9-10)을 가지고 무슬림 선교를 해야 한다. 오늘날 선교현장에 수많은 이란·이라크·아프가니스탄·시리아·쿠르드 무슬림 난민들이 돌아오고 있다.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연말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과 키르키즈스탄을 다녀온 필자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이전에 볼 수 없는 개방정책이 이루어지고 한국과 중앙아시아에 대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한류의 거대한 영향 가운데 중앙아시아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을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방문하고 싶은 나라였다. 키르키즈스탄에서

만난 한 젊은이는 자기 인생에서 Before BTS와 After BTS라고 하면서 BTS 및 한류의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 것인가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런 영향을 한국교회와 선교사역자들은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선교사역과 복음 전파에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기회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 5. 무슬림의 조상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sup>12)</sup>

유대교, 기독교와 이슬람은 아브라함을 각 종교의 위대한 조상으로 여긴다. 그래서 학자들은 세 종교를 아브라함의 종교라고 부른다. 특히 이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대신 이스마엘을 그들의 중요한 조상으로, 아랍 무슬림들은 자신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주장한다. 심지어 이스마엘을 선지자(코란 4:163;19:54) 및 메신저(라술:rasul)로 간주한다. 그 뿐 아니라 이스마엘이 무슬림 자신들을 아브라함과 연결시켜주는 영적 족장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스마엘은 전 세계의 무슬림들에게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이것은 무슬림들에게 매우 중요한 축제와 코란 및 성지순례에서 알 수 있다. 전 세계 17억 무슬림들은 매년 ‘이둘 아드하’(Idul Adha)라는 가장 중요한 축제를 통해 아브라함과 하갈 그리고 이스마엘을 기념한다. 이둘 아드하의 축제는 많은 양과 소를 도살하는데 그 이유는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신 아브라함 선지자를 기리기 위한 것이다. 성경에는 이스마엘 대신 이삭이 바쳐진다(창22장). 하지만 꾸란 37:102에

7) 한스 킹, 『이슬람: 역사·현재·미래』, 손성현 옮김, (서울: 시와 진실, 2012).

8) 킹, 『이슬람: 역사·현재·미래』, 38-59.

9) 킹, 『이슬람: 역사·현재·미래』, 59-67.

10) 킹, 『이슬람: 역사·현재·미래』, 67-77.

11) 킹, 『이슬람: 역사·현재·미래』, 1127-1157.

12) 이병수, 『난민선교』, (서울: 한국선교연구원, 2019).

나타나는 아브라함에 의해 바쳐지는 희생제물도 이스마엘로 간주되어진다. 그곳에 이스마엘이라는 언급이 없지만 많은 무슬림 전문가들은 그 희생제물을 이스마엘이라고 본다<sup>13)</sup>. 무슬림들이 이스마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또 다른 행사는 메카를 향한 성지 순례 때이다. 성지순례는 무슬림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 규범 5가지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이스마엘은 이슬람과 불가분의 관계이고 이스마엘의 미래는 이슬람의 미래와 절대적 관계이다. 하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스마엘에 대해 매우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이스마엘과 그의 자손들은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성경은 이런 이스마엘을 어떻게 보는가?

창세기에 나타나는 아브라함과 하갈 그리고 이스마엘에 대한 성경 말씀은 이스마엘과 그의 족속들에 대한 부정적 생각, 종오심을 수정하게 해 준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놀라운 약속과 축복을 주셨다. 창세기 16장은 아직 이스마엘이 하갈의 복중에 있을 때를 묘사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서, “네가 임신하였으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창16:11)라고 위로 하신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며 그 이름은 여호와께서 하갈의 마음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녀의 고통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이신다는 것을 강조한다. 마찬가지로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갈증으로 죽어 갈 때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창21:17)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 때에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게 하시고 샘물에서 물을 얻게 하시면서 이스마엘에게 주어 그의 생명을 살리라고 지시한다(창21:18).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 대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및 축복을 언급한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창세기 12장부터 25장에 걸쳐 등장한다. 이 성경 구절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그의 자손을 향한 놀라운 약속을 주신다. 첫째, 아브라함의 후손과 같이 이스마엘 자손이 번성하여 큰 나라가 될 것을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창16:10) 둘째, 이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신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창세기 17:20). 이 말씀들 통해 우리가 발견 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 이스마엘에 대한 부정적 편견의 저주가 아니라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다.

많은 학자들은<sup>14)</sup>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을 향한 선교계획은 이사야 42장과 60장에 잘 나타나 있다고 주장한다. 그 두 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스마엘 후손들은 여호와이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다. 그곳에 언급된 계달과 느바욧은 이스마엘의 첫 두 아들들이다(창25:12-13; 대상 1:29). “계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사42:11) “계달의 양무리는 다 네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욧의 숫양은 내게 공급되게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사60:7).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역사와 섭리로 무슬림 선교를 통해 우리의 형제 이스마엘 후손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규모의 회심의 역사(계7:9)가 일어나리라 믿고 확신한다.

13) 퉁, 『이슬람』 참조.

14) 조나단 E.컬버, 『이스마엘』, 제이콥 조 옮김, (서울: Insiders, 2015).

## 6. 무슬림에 대한 거시적 접근

대부분의 선교사들과 선교학자들과 사역자들은 무슬림 문제에 대해 미시적·거시적 접근<sup>15)</sup>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미시적 접근에서 무슬림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물질적·의료적·선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또한 그런 점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변화 되어서 그가 속한 사회와 국가 전체를 변화시키는 일도 가능하다. 거시적 차원 예를 들면 무슬림이 대규모 발생하는 정치·경제적 사건이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 선제적 및 예방적 접근의 정치적 접근도 필요하다. 국제정치학자 사무엘 헌팅تون은 그의 저서 〈문명의 충돌〉<sup>16)</sup>에서 중동·아랍의 무슬림 젊은이들이 테러에 가입하게 되는 인구학적·종교·정치·경제·사회적 다양한 요인을 설명했다. 종교적으로 중동 아랍의 상황은 호메이니와 같은 종교적 원리주의자, 정치적으로 이집트의 무바라크, 리비아의 가다피,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시리아의 알 아사드 독재자에 의한 독재정부, 민주주의 실패, 경제실패로 겪는 실업과 극도의 가난, 이런 다양한 실패로 말미암아 그들이 속한 나라에 희망 상실 가운데 마땅한 건설적 대안과 출구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다양한 부정적 요인들이 실업 상태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테러와 폭력에 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막기 위한 중동·아랍·이슬람 국가를 위한 국제적·정치적 노력이 필요하다. 유럽이 직면하고 있는 무슬림 난민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한 정치철학자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학자 알랑 바디우<sup>17)</sup>와 슬로베니아의 슬라보예 지젝<sup>18)</sup>이다. 신학자이면서 이러한 정치적

접근을 강조한 사람이 한스 퀭이다. 그의 책 〈이슬람〉에서 그는 이슬람에 대한 접근을 ‘국가적 차원’과 ‘정치적 차원’<sup>19)</sup>에서 시도했음을 강조한다. 그에 의하면 “무엇보다도 이슬람 국가의 정치적·사회적 개혁을 지원함으로써 계속해서 테러리스트를 양산해 내는 토대를 허물어야 한다. 가난과 절망에 빠진 계층이야말로 테러리스트의 온상이기 때문이다. 폭력적 극단주의자들을 고립시키고 온건한 무슬림들을 강화하는 일이 성공할 때, 신뢰의 다리를 구축하고 서구 세계와 이슬람 세계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일이 성공할 때, 이스라엘인과 아랍인과 서구인이-유대인과 무슬림과 그리스도인이-서로를 원수로 여기지 않고 동반자로 대하는 일이 성공할 때,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이로써 현재보다 평화로운 세계질서를 수립하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다”<sup>20)</sup>.

한스 퀭의 이런 입장에 대해 많은 이들이 지나친 이상주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그들의 비판에 대해 한스 퀭은 다음과 같이 답한다. “이러한 시도는 정치·경제·학문·언론 분야의 염세주의자와 냉소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상주의적 순진함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새로운 세계질서에 대한 희망을 아예 포기하고 사는 게 아니라면, 이러한 시도야 말로 유일한 실제적 대안이다”<sup>21)</sup>. 무엇보다도 그는 이슬람을 소망의 관점에서 보고자 하였고 그것에 기초해서 대안이 그의 표현처럼 “유일한 실제적 대안”은 아니지만 무슬림 문제를 접근하는데 거시적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 중의 하나이다.

15) “미시적·거시적 접근”이라는 용어와 표현은 이해를 돋기 위한 틀로서 사용한 표현이지 그것이 의미에서 적고 크다는 것은 아님

16) 사무엘 헌팅تون, 『문명의 충돌』, 이희재 옮김 (서울: 김영사, 1998), 143-159.

17) 알랑 바디우, 『우리의 병은 오래전에 시작되었다』, 이승재 역 (서울: 자음과 모음, 2016).

17) 슬라보예 지젝, 『새로운 계급투쟁』 김희상 옮김, (서울: 자음과 모음, 2016).

18) 사무엘 헌팅تون, 『문명의 충돌』, 이희재 옮김 (서울: 김영사, 1998), 143-159.

19) 한스 퀭, 『이슬람: 역사·현재·미래』, 손성현 옮김, (서울: 시와 진실, 2012), 17.

20) 퀭, 『이슬람: 역사·현재·미래』, 11-12.

21) 퀭, 『이슬람: 역사·현재·미래』, 11.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적 원리와 가치를 현실에 실현하는데 너무나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인간의 전적타락과 부패의 부정성 때문에 어떤 성경적 이상적 원리와 가치를 현실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염세주의와 냉소주의가 팽배하다. 그러나 인간의 죄성 가운데 하나는 “체념의 죄”이다. 조직신학자 다니엘 L. 밀리오리에 의하면 “체념이란 인간 역사의 사악한 세력에 무조건적으로 묵종함을 의미한다. 실제로 무엇인가가 변화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더 정확히 말해 무엇인가가 더 나은 상태로 변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의심하고 비웃는 것이다.... 이런 체념의 결과로, 더 큰 정의를 위한 작은 기회들과 평화와 화해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작은 조치들이 무시되거나 냉소적으로 일축한다”<sup>22)</sup> 이 체념의 죄가 세계교회와 세계교회로 하여금 이슬람과 무슬림 선교에 위축되거나 움추려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신학에 기초해서 이슬람 선교를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으로 생각했던 시대이며 200년 간 진행된 십자군 전쟁(1095-1291) 기간 동안 기독교의 칼과 창의 정복적·승리주의적 방식의 선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눈물과 기도로 무슬림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고 80세가 넘어서도 무슬림 선교지 북아프리카에 선교를 가서 둘에 맞아 순교했던 레이몬드 룰(Raymond Lull, 1232-1315)을 생각하자. “나는 많은 무장한 기사들이, 성지를 다만 칼과 창으로 얻을 수 있다고 믿고 바다를 건너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은 파괴만 불러올 따름입니다. 나는 성지회복은 사랑과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눈물과 피를 쏟아 부음으로써만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믿습니다.”<sup>23)</sup>

22) 다니엘 L. 밀리오리, 『기독교 조직신학 개론』, 신옥수역, (서울: 새물결출판사, 2016), 274-275.

23) 루스 터커, 『선교사 열전』, 박해근 역, (서울: 크리스챤라이제스트, 1996), 61.

## 7. 우리의 반성과 성찰

### 7.1. 무함마드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나?

무슬림 숫자는 전 세계인구 77억 중 17억에 이르고 앞으로 기독교인의 숫자(25억)를 능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슬람은 지역적으로 기독교 다음으로 전 세계에 가장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 종교다. 그런 점에서 만약 창시자 무함마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라면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본다. 이것을 통해 우리 기독인 모두가 역사의 교훈을 배우고자 한다.

무함마드는 AD 570-632년이 그의 생애 기간이다. 그는 예수님 탄생과 기독교의 시작 500년 이후의 사람이다. 이슬람 경전 코란은 성경의 내용 중 구약의 모세오경, 시편 그리고 복음서의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어떤 형태든 기독교와 성경과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과의 접촉이 있었고 영향을 받았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 당시 기독교계의 5대 교구는 로마, 콘스탄티노플(현재 이스탄불), 앤디옥, 알렉산드리아 및 예루살렘이었다. 기독교계에서 서방교회가 로마와 카르타고를 중심으로 라틴어 사용지역이었다면 동방교회의 대표적 지역은 알렉산드리아와 앤디옥을 중심한 헬라어권이었고 알렉산드리아 및 앤디옥 학파가 생기면서 그들이 중심이 되어 동방교회를 이끌었다. 무함마드가 살았던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는 이미 동방교회의 영향이 있었던 지역이다. 5개교구 중 로마를 제외한 다른 4개 지역은 아라비아 지역과 인접했고 특히 시리아 앤디옥이 인접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독교 국가였던 에디오피아, 아라비아 지역의 남쪽 네즈란(Neṣrān), 지금의 북예멘에 기독교 감독과 지도자들, 그리고 시리아어 성경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다. 예멘 지역은 아랍인들

에게 남부 아라비아의 주요 기독교 센터로 잘 알려진 곳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함마드가 기독교인이 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학자들은 몇 가지 이유를 그 근거를 든다.

첫 번째 무함마드 당시 아랍어로 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이다<sup>24)</sup>. 성경은 주후 837년까지 아랍어로 번역되지 않았다. 무함마드 생애동안에는 아랍어로 된 성경이 없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두 번째 이슬람이 시작되었을 때 아라비아에는 그들에 대한 선교적 중인으로서의 적극적 삶이 부족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교도였던 아라비아인들에 대해 효과적인 선교에 필요한 사랑과 성결한 삶과 영적 능력이 부족했다. 세 번째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함마드는 중동 기독교의 심각한 분열(이교 종파들의 분열은 물론 네스토리우스교도, 단성론자, 칼케돈 주의자들)을 보게 된 것도 기독교인이 되지 않은 요인이 될 수 있다. 네 번째 그 당시 동방 기독교를 표방하는 세 개의 나라들, 비잔틴 제국, 네스토리우스와 관련된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아라비아 및 아프리카에 영향력을 끼쳤던 기독교 국가 에디오피아 등 아라비아 주변의 강대국이 제국주의적 모습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함마드의 아내 카디자(Khadija)의 친척 중 사촌인 와라까 빈 나우팔(Waraqah bin Nafal)은 그리스도인이었고 무함마드가 그와 대화를 많이 나누었다고 한다. 무함마드의 최초의 8세기 전기 작가 이븐 이사크(Ibn Ishaq)에 의하면 무함마드가 12 살 때 삼촌 아부 탈립(Abu Talib, d.619)과 함께 대상을 이끌고 시리아로 갈 때 바스라에서 바히라(Bahira)라는 기독교 분파인 네스토리우스 수도승을 만났다고 한다. 그 전기 작가는 야부르(Jabr)라는 또 한명의 에디오피아 그리스도인이 무함마드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이런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 볼 때 무함마드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이유는 그 당시 기독교의 잘못이 일차적으로 있지만 그가 복음에 적극적이지 못한 그의 잘못도 크다. 무엇보다도 그가 받은 기독교 신학이 이단의 영향도 있었고 그가 기독교의 참된 계시와 말씀을 코란에 나타난 대로 왜곡시킨 잘못도 매우 크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성경 번역과 기독교인의 적극적 선교가 이슬람 선교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각성하는 것이다.

## 7.2. 이슬람의 칼리프 시대

이 부분에서는 이슬람의 칼리프 시대에 어떻게 기독교 지역이었던 국가들이 그렇게 빨리 이슬람화 되었는가를 살펴본다. 이슬람의 대표적 연구가인 영국인 종교학자 카렌 암스트롱은 그의 책 〈이슬람〉<sup>25)</sup>에서 이슬람의 역사를 이슬람 초기, 이슬람 발전기, 이슬람 전성기, 이슬람 황금기, 고뇌하는 이슬람으로 5시기로 나눈다. 그 이슬람 초기(무함마드 시기와 칼리프 시대)에 해당하는 칼리프 시대를 살펴본다. 칼리프란 무함마드 이후 이슬람 세계를 통치하는 통치자의 아랍식 표현의 이름이다. 이들은 무함마드(570-632) 사후 무함마드와의 개인적인 친분과 이슬람에 대한 충성에 기초한 종교적 가부장적 권위를 내세워 통치했다. 역대 칼리프는 정복지의 군사행정의 수장이 되었고, 그들은 알라의 대리인을 자임하며 그 역할을 수행했다. 7세기 초부터 8세기 중반에 이르는 이 기간에 이슬람을 지배한 것은 무함마드의 “후계자”인 역대 칼리프였다. 대표적 칼리프는 아부 바크르(632-634), 우마르(634-644), 우스만(644-656)과 알리(656-661)였다.

이슬람의 초대 칼리프 기간 동안 주목할 만한 사건들은 교회사적으로

24) 키스 스와틀리 편저, 『인카운터 이슬람』, 정옥배 옮김, (서울: 예수천도단, 2008), 51.

25) 카렌 암스트롱, 『이슬람』, 장병욱 역, (서울: 을유문화사, 2012).

동방교회의 중심지가 거의 몰락되어 이슬람의 지배를 받은 것이다. 그 당시 이슬람의 2대 칼리프 우마르 재임기간 다메섹이 635년에 함락되고 기독교교회의 5대 교구 중 하나인 예루살렘이 637년에 함락, 638년에는 안디옥, 트리폴리, 두로, 가이사랴 등과 지중해 연안을 따라 15개의 다른 도시들이 함락되었다. 다음해 639년에는 700년 동안이나 로마제국의 동쪽 요충지였고 동방교회의 중심지였던 시리아가 이슬람화되었다. 642년에 동방교회가 있었던 알렉산드리아의 이집트가 함락되고 644년에는 동방의 강대한 제국이었던 페르시아가 이슬람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4대 칼리프 기간 중 북아프리카는 이슬람의 수중에 들어갔으며 지금 튀니지의 수도 카르타고 까지 지배하에 놓였다. 초대 교부로서 기독교 역사에서 큰 영향을 끼친 키프리안, 터틀리안과 어거스틴이 활동했던 북아프리카 기독교 지역들이 모두 다 이슬람화되었다. 얼마나 안타깝고 통탄할 일인가. 이제 이슬람의 목표는 동방교회가 있는 도시 중 가장 큰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하여 동로마제국을 종식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무슬림 군사들은 새로운 전술을 강구하였다.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보병들로서 육로로 타우루스 산맥을 넘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무슬림 군대는 해군을 조직하여 사이프러스(성경의 구브로)섬을 648년 정복하고 지중해의 코스섬과 로도섬을 654년 유린하였다. 이렇게 진행된 무슬림의 공격은 남부 아시아 전체를 651년에 정복하게 되었고 아르메니아 대부분이 652-654년 기간에 예속되었다. 따라서 이슬람 4대 칼리프 통치의 몇십 년 동안 동방 기독교의 비잔틴 제국은 가장 비옥하고 인구가 많던 지역들을 상실하였으며, 계속 수세에 몰렸으며 이전에 누리던 영화의 그림자 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가? 학자들에 의하면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 첫째, 이슬람의 종교적 열정과 단합된 결집력, 사막 지방의 빈곤이(헝가리 정신?) 그리고 무함마드를 중심한 탁월한 정치 및 군사적 지도력이 이런 승리를 가능하게 했다고 한다. 둘째는 기독교회의 영성과 신학의 부족과 교회의 내분으로 본다. 많은 학자들

이 지적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동방제국과 교회의 내분 때문이었다. 일본 역사학자 시오노 나나미는 그의 책 〈로마 멸망이후의 지중해 세계 상·하〉<sup>26)</sup>에서 서로마제국의 멸망이후 지중해를 두고 기독교와 이슬람이 800년 동안 재해권 싸움의 역사를 서술하는 중 기독교가 이슬람에 패배하는 내용에서 기독교의 내분에서 패배를 초래한 것으로 설명한다. 교회의 하나님과 일치성을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

### 7.3. 이슬람에 대한 오해 극복

오늘날 서구 역사 및 동양의 역사에서 이슬람에 대한 문제점을 냉정하게 직시 하는 것만큼 무지와 오해와 편견도 많음을 역사에서 살펴보자. 이런 극복을 통해서 이슬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교적 접근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연구의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케이프타운 선언에 있는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타종교에 관한 거짓과 왜곡을 조장하는 행위를 거부하고 대중매체와 정치적 수사를 통해 인종차별적 편견과 종교와 공포를 일으키는 것을 고발하고 이에 저항”하기 때문이다.

#### 7.3.1. 이슬람에 대한 서구의 태도

이슬람 역사를 고찰하려면 먼저 수세기동안 걸쳐 이슬람 사회에 대한 서구인들이 나타낸 ‘적대감’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sup>27)</sup>. 기독교 입장에서 무엇보다도 꾸란의 내용에 나타나는 기독교의 입장에서 조금도 동의할 수 없는 신학적 요인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이슬람의 삼위일체설 부정 및 그것이

26) 시오노 나나미, 『로마 멸망이후의 지중해 세계 상·하』, 김석희 옮김, (서울: 한길사, 2015).

27) 프랜시스 로빈슨 외 지음, 『케임브리지 이슬람사』, 손주영외 옮김, (서울: 시공사, 2014), 14.

무슬림의 입장에서 신성모독이라고 여기는 것,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단순한 선지자 중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 등이다. 물론 이슬람의 종교적 및 군사적 엄청난 팽창력 가운데 무함마드 사후(570-632) 특히 이슬람의 4대 칼리프 시대 즉 AD 635년 이후 중동의 시리아 다메섹, 예루살렘과 북아프리카의 이집트, 튀니지, 알제리 및 모로코 정복 그리고 711년에 스페인 정복 및 732년에 푸아티에 진출로 말미암아 유럽이 마침내 이슬람의 수중에 들어갈 것이 아닌가에 대한 두려움 등의 군사적 요인도 있다. 더욱이 셀주크 터키와 오스만 터키의 10세기 이후 십자군 전쟁과 지중해 주위를 마침내 동로마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의 함락으로 동유럽을 군사적으로 정복하는 동안 서유럽의 나라 대부분은 이슬람제국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과 증오로 가득 찬 것은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십자군 전쟁기간 동안 기독교가 저지른 범죄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슬람에 대한 신학적 차이와 그들의 가공할만한 군사적 공격과 위험 때문에 이슬람에 대한 증오는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서구 및 한국의 이슬람에 대한 무지<sup>28)</sup>와 편견과 오해도 극복할 필요가 있다. 이런 가운데 이러한 오해와 무지와 편견을 극복하고자 하는 학문적 노력이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노력 가운데 이슬람과 서구의 오랜 역사에서 많은 공통점이 있으며 서로에게 얼마나 많이 빚지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있어왔고 그 사실을 통해서 특히 이슬람의 철학 및 과학 등 그들이 이룩한 업적을 평가하는 노력이 있었다. 특히 이슬람은 그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첫째, 서쪽으로는 그리스 철학 문학 과학 및 의학을 배웠고, 둘째, 동쪽으로는 인도와 페르시아로부터 수학과 예술 및 건축 그리고 페르시아가 운영했던 제국의 행정 경험을 습득했다. 셋째로 콘스탄티노폴리를 중심으로 한 동로마제국의 문화와 행정을 배우는 가운데 종합과 통합을 이루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북아프리카를 통해 서유럽 특히 스페인에 전달되고 그것이 이탈리아로 연결되어 유럽의 르네상스를 꽂피우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이슬람을 무지와 폭력과 전쟁의 종교로만 보는 것을 불식하고 긍정적인 면을 봄으로써 이슬람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가져서 선교에 대한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자 합이다.

### 7.3.2. 이슬람의 종합과 과학적 성취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슬람하면 전쟁, 폭력, 수니파와 시아파의 종파 싸움, 테러, 살인, 가난, 독재와 부패정치, 이슬람에는 민주주의가 가능한가에 대한 회의, 네 명의 아내, 다산, 히잡 및 부르카 사용, 조흔 풍습과 관련한 여성할례의 여성인권 유린 등 부정적 단어들을 연상한다. 사실 그런 면이 현대 이슬람의 모습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슬람 사회와 문화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손님 대접의 환대, 명예 및 지식의 중요성과 과학적 성취 등 긍정적 요소도 많다. 많은 사람들은 이슬람의 현재의 모습 속에서 과거의 찬란한 역사를 도저히 상상할 수 없지만 르네상스 전까지만 해도 이슬람이 유럽보다 더 선진화 된 제국이었다. 특히 데이비드 리버링 루이스는 그의 책 <신의 용광로><sup>29)</sup>에서 이슬람 문명이 AD 570-1215년 동안 유럽의 발전된 문화를 형성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가를 보여준다. 사실 서구의 르네상스에 영향을 끼친 것도 중세의 이슬람 덕택이다. 이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자.

#### - 이슬람의 종합

이슬람이 무함마드(AD 570-632) 사망 이후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는 과정에 주변의 많은 나라들의 문화를 흡수 및 수용한다. 이슬람이 제국으로 발전하면서 이슬람의 주변의 가장 중요한 나라는 비잔틴 제국과 페르시아제국과 인도였다. 이슬람은 주변의 나라를 접촉하고 정복하면서 그리스 사상과 과학,

28) 로빈슨, 『케임브리지 이슬람사』, 15.

29) 데이비드 리버링 루이스, 『신의 용광로』, 이종인 옮김, (서울: 책과 함께, 2010).

페르시아 문화와 사상, 그리고 인도의 수학을 흡수 융합한다. 탁월한 이슬람연구가인 S. D. 구아텡은 이슬람의 ‘중간문명(Intermediate civilization)’이라고 했다<sup>30)</sup>. 첫째, 시간적인 맥락에서 이슬람의 황금기는 중동과 헬레니즘 세계에서 출현한 고대문명들과 근대 여명기의 중간기에 위치하여 과도기를 이루고 있다. 둘째, 공간적으로는 이슬람은 지중해 세계에서 멀리 아시아, 아프리카 및 스페인의 문화에 까지 영향을 주고받았다. 이처럼 다양한 전통으로부터 젖줄을 받고, 많은 민족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또 그들로부터 받으면서, 이슬람은 그들 모두에게 독특한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특히 인류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남겼다.

#### - 과학적 성취

특히 이슬람이 서구사회와 중세에 끼친 중요한 영향은 첫째로 과학적 성취이다. 예를 들면 화학자가 만드는 약, 의사의 기술, 컴퓨터에 의한 계산, 경제전문가가 세우는 예측 등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는 현대인은 흔히 생각하기보다 훨씬 많은 것을 중세의 이슬람 과학자들에게 신세를 지고 있다. 9세기부터 14세기까지의 사이에 이슬람의 화학자, 의사, 천문학자, 수학자, 지리학자 등은 그리스 과학의 가르침을 계승하여 후세에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영역을 확대하여 근대 과학의 많은 부분에서 기초를 다지는 데 공헌했다. 현재 영어권에서 사용하고 있는 알제브라(Algebra-AL-JABR, 대수)에서, 알칼리(Alkali-Al-Qili), 알코올(Alchol-Al-Kuhl), 그리고 중세에 있어서의 화학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연금술의 용어 알키미(Alchemy-Al-Kimiya)는 아랍어이고 이슬람의 과학적 성취에서 서구에 전달된 것이다.

처음 이들 학자를 매혹하고 있던 큰 학문적 자석은 이슬람의 암바스 왕조 수도 바그다드였다<sup>31)</sup>. 813년부터 833년 까지 제국을 통치한 칼리프 알 마문은

30) 베나드 루이스, 『이슬람 1400년』, 김호동역, (서울: 까치, 2013), 78.

31) 디즈몬드 스튜어트, 이슬람, (서울: 타임라이프, 1979), 121.

바그다드에 “지혜의 집”이라는 도서관, 번역소, 학교로 된 학술 센터를 설치했다. 알 마문에 의해 지혜의 집이 설립되고 나서 75년 동안에 그리스인을 비롯한 고대 민족의 위대한 사상이 속속 아랍어로 번역되었다. 그 가운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대표적 철학서, 플라톤의 몇 가지 주요 작품, 그리스 수학과 기하학의 유클리드, 천문학의 프톨레마이오스, 그리스 수학자 및 물리학자 아르키메데스, 그리고 그리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 약학자 디오스코리데스, 해부학자 갈레노스 등 그리스 주요 저작, 그밖에도 페르시아나 인도의 수많은 과학상의 업적이 포함되어 있었다. 알 마문은 그리스의 서적을 찾기 위해 멀리는 콘스탄티노폴리스까지 사람을 보내어 그것들을 바그다드에 가져오게 하고 아랍어로 번역케 하였다고 한다. 이 번역 작업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후나인 이븐 이스하끄(809-873)로 그는 의사이며, 번역자이고 특히 네스토리우스 기독교도였다. 그는 그의 아들과 조카를 비롯한 약 90명의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 번역 사업을 수행했다. 그리스어로 된 서적을 우선 시리아어로 번역하고 그것을 다시 아랍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다. 이렇게 번역된 그리스작품들을 나중에 라틴어로 번역되어 주로 시칠리아와 스페인을 거쳐 서구에 전해지고 그것이 유럽에 전달되어 유럽에 새로운 학문의 부흥이 일어나고 르네상스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이슬람의 위대한 업적이 빛을 발한 두 번째 영역은 천문학이었다. 무슬림 천문학자들은 그리스 이란 및 인도의 자료를 통해 그 기초를 놓았다. 9세기 무렵 프톨레미오스를 비롯한 그 외에 그리스 학자들의 연구는 한 걸음 나아가게 되었다. 이들은 천문표 분야에 위대한 업적을 남겼으며 이라크의 중요도시인 모술근처에서 자오선을 측정하는 등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세 번째 발전은 의학이었다. 초기 이슬람의 무슬림 의사들은 그리스, 알렉산드리아, 근동 이란 및 인도전통에 따라 환자를 치료했다. 최초로 등장한 의사은 아부 바크르 무함마드 이븐 자카리야 알 라지이다. 이슬람 초기의 의사은 대부분이 페르시아 태생이었으나 그들은 중세에 있어서의 학술어였던 이슬람 과학

전체를 뒷받침하고 있던 것은, 세계는 얼핏 보아 혼돈된 듯 하지만 그 속에는 근본적인 질서가 있다는 그리스적 신념이었다. 이 질서는 인간의 이성에 의해 이해 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에 지배되고 있고 일단 그러한 법칙을 그러나 가장 위대한 의학서의 저자는 이븐시나이다. 그의 〈의학정전(al-Qamun fil-tibb)〉은 의학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저서로 알려졌다. 이 책은 12세기 무렵 라틴어로 번역되어 최소한 6세기 동안 유럽의 의학교육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의학 외에 이슬람 세계는 수학의 진보에도 크게 공헌했다. 이 분야에 있어서도 무슬림은 지식을 남에게서 빌어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재능을 발휘하여 주로 인도와 그리스의 지식을 발전시키고 연마한 후 서구에 전했다. 그들은 힌두교도로부터 수학의 가장 기초적인 세 가지 요소를 도입했다. 이른바 아라비아 숫자의 바탕이 된 숫자, 십진법, 제로(0)의 개념, 이 세 가지이다. 이런 이슬람의 종합사상으로 “8세기 중반부터 12세기에 이르는 약 400년 동안 이 종합 문화는 달리 비길 데 없는 업적을 올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유럽에 있어서의 르네상스의 과학이나 문학의 대부분은 이슬람을 모델로 하여 일어난 것이다.”<sup>32)</sup>

따라서 이슬람 사상은 그리스사상, 페르시아의 이란 및 인도의 사상을 종합한 것이고 이슬람은 서구의 르네상스에 영향을 끼쳤으며 서구의 과학과 의학 등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사실 이슬람이 7세기 무함마드가 등장하고 발전 및 확장하는 중세의 이슬람 사람들은 서양문명을 자기들의 것보다 뒤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은 옳다. 비록 르네상스 후기 이후에 와서는 이 지위가 역전하기 시작했지만 말이다.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르네상스 전까지 이슬람 세계가 유럽보다 더 앞선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르네상스의 발전에 기여한 문화가 이슬람 문화였고 특히 그리스 과학 및

철학이 르네상스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리스 선진 문화를 르네상스의 시대의 서구사회에 전달한 것이 이슬람 문화였다. 영국의 철학자 베트란드 러셀이 그의 책 〈서양철학사〉<sup>33)</sup> “헬레니즘의 매개자 이슬람교도”라는 부분에서 이 점을 잘 지적한다.

#### 7.4. 오스만 터키<sup>34)</sup>

그 동안 대한민국은 서양의 유럽과 북미 중심의 역사에 경도되고 편중되어 서 동양 사상에서 중요한 이슬람 특히 지중해 주변의 동유럽, 북아프리카, 중동 및 콘스탄티노폴을 중심한 동로마제국을 정복한 오스만 터키에 대해 잘 모르는 현실이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이슬람에 대한 극단적 부정적 오해를 불식시키고 선교적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오스만 제국 연구의 대표적 학자인 도널드 큐트트<sup>35)</sup>는 오스만 제국의 중요성을 몇 가지 차원에서 지적하는데 첫째, 가장 오랫동안 가장 넓은 지역을 통치했다는 것이다. “오스만 제국은 역사상 가장 대단하고, 가장 넓고 가장 오랫동안 지속했던 제국이다. 오스만 제국은 동로마제국의 영토 대부분을 아울렀으며, 발칸반도 북부와 흑해 북안 등 비잔티움이 통치한 적이 없는 지역까지도 점령했다. 또 이러한 영토는 단기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서기 1300년 전에 건국하여 1차 세계대전 이후 까지 지속되었다”. 둘째, 그는 오스만 제국을 연구하고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부여하는 이유를 오스만 제국이 그의 역사의 대부분에서 보여준 “관용적인 통치의 모범”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유럽인들은 오스만 인들을 온갖 악의 소유자로 만들었다”고 지적한

32) 자료 출처를 찾지 못했음.

33) 베트란드 러셀, 『서양철학사』, 서상복 역,(서울: 을유문화사, 2014), 383-384.

34) 전국역사교사모임 지음, 터키사, (서울: Humanist, 2012).

35) 도널드 큐트트, 『오스만 제국사』, 이은정 역, (서울: 사계절, 2008), 25.

다. 마틴 루터도 같은 수준으로 그들을 취급했다. 바로 이런 왜곡된 관점을 시정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슬람 국가를 보는 것이 오늘의 한국선교에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슬람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터키에 대한 이해는 무슬림선교 전체에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필자는 오스만 터키가 저지른 잘못을 미화하는 것도 생략하는 것도 반대한다. 예를 들어 오스만 터키가 저지른 엄청난 만행 아르메니안 대학살(1915-1916년)과 쿠르드족에 대한 학살들도 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슬람에 대한 극단적 부정적 이미지를 바로 잡아 무슬림 선교에 균형 있는 시각을 제공하고자 하는 작은 시도일 따름이다.

오스만 터키(1300-1922년)는 약 600년 동안 지중해를 중심으로 제국을 세웠고 로마제국의 영토와 맞먹을 수준의 제국이었고 그 대표적이 나라가 오늘날 터키이다. 그런 점에서 오스만 터키 역사적 배경으로 셀주크 투르크를 먼저 살펴보자.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는 동로마제국을 무너뜨린 전쟁 때문이고, 둘째는 이 때 십자군 전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오스만 터키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오스만 터키 전에 터키 땅에 나라를 세운 셀주크 투르크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투르크족이 터키 땅인アナ톨리아 지역에 처음 등장한 것은 10세기 무렵이었다. 투르크족 가운데 한 부족인 셀주크 투르크는 셀주크 와 토그릴이라는 걸출한 지도자의 주도 아래 비단길로 유명한 사마르칸트 부근에서 출발해 2012. 페르시아(이란), 시아, 예루살렘,アナ톨리아 일대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다. 하지만 셀주크 제국의 영토가 된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해 유럽에서 십자군 원정단이 조직되면서 셀주크 제국과 유럽 사이에 충돌이 빚어졌다. 11세기 후반에는 더욱 많은 투르크인들이 본격적으로 터키 땅으로 이동해 와서 정착하고 살았다. 이들은 셀주크 제국이 약화되는 시기에 룸 셀주크를 세우고 투르크-이슬람 문화를 꽂고자 했다.

### - 셀주크 제국, 비잔티움 제국을 물리치다

토그릴이 죽은 뒤에도 셀주크 투르크는 계속 영토를 넓혔다. ‘용감한 사자’라는 뜻을 가진 술탄 알프 아르슬란 때는 서아시아 대부분을 통일한 뒤アナ톨리아 반도까지 진출해 비잔티움 제국의 땅이었던 콘야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로마 제국의 계승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디오게네스는 동방의 이름 없는 유목 민족 군대가 제국을 공격하자 마침내 1071년, 반 호수 부근의 만지케르트(말라즈기르트)에서 셀주크 제국과 비잔티움 제국 사이에 운명을 건 전투가 벌어졌다. 혹자<sup>36)</sup>는 이 전쟁을 “세계판도를 바꾼” 전쟁으로 평가한다. 2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나타난 비잔티움 군대와 이에 맞서야 하는 투르크군은 겨우 5만 명, 비록 숫자는 적었지만 셀주크군은 기병을 이용해 움직였고, 이들의 기습 공격을 받은 비잔티움 군사들은 네 배나 되는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결국 셀주크군은 대승을 거두었고, 비잔티움 황제까지 사로잡았다. 그러나 전투가 끝난 뒤 술탄 아르슬란은 비잔티움 황제를 풀어 주었다. 대신 그때까지 비잔티움 제국이 차지하고 있던アナ톨리아를 셀주크 제국의 영토로 삼고, 해마다 많은 공물을 바치게 했다.アナ톨리아에 살던 그리스인들도 이들을 환영했다. 비잔티움 황제의 가혹한 통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 - 오스만 터키의 출현 배경

1258년 몽골의 침략으로 룸 셀주크의 세력이 약화된 사이, 룸 셀주크와 비잔티움 제국 사이에 있던 작은 부족이 부족장 오스만을 중심으로 1299년 오스만 공국을 건국했다. 이후 오스만의 뒤를 이은 술탄들이 끊임없이 비잔티움 제국을 침략하고 동서로 영토를 넓히면서 제국으로 발전했다. 제7대 술탄 메메드 2세는 어머니는 비천한 기독교도 노예출신이었고 그는 약관 20세의 나이에 콘스탄티노폴을 1453년 함락시키고 비잔티움 제국을 무너뜨렸다.

36) 유재원, 터키, 『일만년의 시간여행』, (책문, 2013), 212.

이로써 10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기독교 세계의 정신적 지주였던 비잔티움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이슬람교를 믿는 오스만 제국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 오스만은 그 이후 동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 오늘날 많은 무슬림들이 거주하는 코소보(세르비아 지배 때인 1389년), 세르비아(1521년), 헝가리(1526년 1544년),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1463년), 불가리아(1396년) 및 정교회 국가인 세르비아(1459년) 등을 정복하고 중동의 이란,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과 북아프리카의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로 마제국의 크기와 비슷한 지역을 지배하게 되었다. 그것도 1919년 1차 세계대전의 시기까지 약 600년 넘는 기간을 지중해 지역을 호령하게 되었다. 이 때 유럽에는 투르크인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찬 오스만 제국 때문에 지구의 종말이 올 것으로 생각하는 상황이었다. 이 오스만 제국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당시 마틴 루터는 여러 개의 글을 작성했는데 터키군의 엄청난 군사적 능력과 타월함에 대해 탁상담화<sup>37)</sup>에 언급되어 있다. 마침내 1299년, 그는 나라를 세우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나라 이름을 오스만이라고 했다. 1923년 터키 공화국이 세워질 때까지 동지중해를 장악하고 유럽과 서아시아를 호령했던 600여 년 역사의 오스만 제국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유럽을 떠나 한 오스만 제국은 16세기에도 영토를 계속 확장해 술레이만 1세(1520-1566년, 그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 왕 이름에서 차용)는 46년 기간 통치동안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세 대륙에 걸쳐 대제국으로 발전했다. 이때 동지중해는 오스만 제국의 호수가 되었다. 술레이만은 법을 만들고 통치 제도를 정비해 ‘카누니(입법자)’로 불렸으며, 영토를 넓히고 법률·문학·예술·건축 등의 분야에서 큰 업적을 이루며 제국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술레이만은 모스크와 술탄 아흐메트 모스크(블루모스크) 등 오스만 제국을 대표하는 건축물들도 이때 세워졌다. 하지만 술레이만이 세상을

떠난 뒤 왕위 계승 문제를 둘러싸고 지배층이 대립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된 오스만 제국은 제 2차 빈 포위 공격(1683년)에 실패하면서 정체되기 시작했다. 46년을 통치하는 동안 술레이만은 무려 13차례나 원정을 떠났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먼저 베오그라드를 정복하고 로도스 섬을 함락시켜 동지중해의 해상권을 장악했다. 다음으로 그는 헝가리 원정에 나서 모하치 전투에서 헝가리 기병대를 오스만의 대포 공격으로 격파하였다. 술레이만은 이후 군대를 더 진격시켜 헝가리에의 수도 부다페스트를 점령했다. 당시 헝가리가 오스만 제국에게 점령당해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유럽 나라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또한 오스만 제국이 언제 자신들을 공격해 올지 몰랐기 때문에 유럽 세계는 항상 긴장하고 있었다. 술레이만이 통치하는 동안 서유럽에서는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신항로를 개척했고, 알프스 이북 지역에서는 르네상스가 꽃을 피웠으며,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등 근대 의식이 짹트면서 절대주의 사회로 성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유럽 국가들에게 오스만 제국은 여전히 무서운 존재였고, 제국의 팽창 앞에서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동남쪽으로 이란과 이라크를 공격하고 바그다드를 손에 넣은 뒤, 아라비아 반도 남부와 페르시아 만까지 진출했다. 또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북부의 튀니지와 알제리를 정복하고, 동북부 아나톨리아로 영토를 넓히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바다로도 진출하여 에게해 섬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서지중해에서는 로도스 섬에 머물던 성 요한 기사단을 몰아내고, 베네치아와 전쟁을 벌이기도 했다. 술레이만 1세가 다스리던 동안 오스만 제국은 동지중해를 둘러싸고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에 걸친 대제국이 되었고, 동지중해는 오스만 제국의 호수가 되었다. 술레이만 1세 이후에도 오스만 제국은 키프로스(사이프러스, 1571년)와 크레타 섬을 차지하고, 흑해 동부 연안을 장악하는 등 영토를 계속 넓혀 나갔다.

술레이만은 약 2000만 명이 넘는 제국의 백성들을 다스렸다. 하지만 이들은

37) 마르틴 루터, 『탁상담화』, 이길상 역,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19): 498-506.

하나의 민족이 아니었다. 지배층인 투르크인 외에도 원주민인 그리스인, 로마인과 포로로 잡혀 온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있었다. 또한 이들 사이의 결혼으로 혼혈이 생기면서 인종이나 민족은 더욱 복잡해졌다. 제국의 어느 곳에서든지 아랍인, 유대인, 기독교인, 투르크인들이 뒤섞여 살았다. 1535년의 인구 조사에 따르면, 이스탄불의 총가구 수 8만 가운데 무슬림 가구가 58퍼센트, 기독교인 가구가 32퍼센트, 유대인 가구가 10퍼센트를 차지할 정도였다. 이들 사이에는 종교, 언어, 풍습, 문화적인 차이가 커다. 술레이만 1세는 이렇게 복잡한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 제국의 모든 백성에게 똑같이 적용될 법을 만들도록 명령했다. 귀족 출신만이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었던 유럽의 나라들과는 달리 오스만 제국에서는 신분이동을 할 수 있었다. 물론 오스만 제국에도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있었다. 지배층 가운데는 투르크족 초기의 전통적인 지배층 출신도 있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제2차 빈 포위 공격이 실패하기 전까지 오스만 제국은 여전히 세 대륙을 지배한 대제국이었고, 서유럽 국가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유럽이 신향로를 개발하고 무역의 중심이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옮겨 가자 지중해를 통한 동서 무역으로 많은 이익을 얻어 오던 오스만 제국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고 1683년 빈 포위 공격이 실패하면서 오스만 제국은 정체와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 8. 종교 연구 및 이슬람 연구소의 필요성

시카고 대학의 역사학자 마틴 마티는 21세기에 가장 연구할 매력적인 대상으로 종교로 보았다. 칼빈은 우리 인간을 우상공장<sup>38)</sup>으로 표현했다. 그는 모든 시대와 장소를 통해서 종교가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사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임과 동시에 종교적 존재이다. 앞으로 종교 교육 및 이슬람 연구가 더 필요한 시점이다. 이유는 외국인 거주자 300만 명 대한민국에 들어온 나라 숫자가 약 200개에 이른다. 이주의 결과로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다문화 상황은 다종교 시대이다. 그들 숫자 중 종교적으로 불교 20만, 힌두교 1만, 무슬림은 20만, 천주교 5만, 공산권 지역 관련자가 65만 명에 이른다. 이슬람과 관련하여 전국 15개 지역에 이슬람 사원이 운영 중이며, 임시 예배소는 60여 개, 이슬람 센터는 4개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자료가 몇 년 전 것이라 현재는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외국인 이주민 현황은 10/40 지역에 포진하고 있고 그들 대부분 미전도 종족이다. 사상구 서부 터미널 옆에 이슬람 모스크가 설치되어 많은 무슬림들이 매주 금요일 모여서 기도한다.

지난 해 6월 필자는 독일의 디아스포라 컨퍼런스에서 독일 발표자의 내용 중 뒤셀도르프 도시에는 외국인이 40% 거주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와 같은 현상이 한국에도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유는 극도의 저출산과 고령화로 외국인 노동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과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대부분 유럽의 이주자들은 터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이슬람 쪽 사람들이다. 암스테르담에만 30여 개의 모스크가 있고 네덜란드에 들어와 있는 무슬림은 90만 명 이상으로 전체 인구의 6% 정도 차지한다. 신생아의 50%는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나고 있다. 따라서 유럽의 학교와 교회는 이슬람 연구가 필수적이다.

특히 중앙아시아의 대표적 무슬림 국가인 우즈베키스탄사람들이 지난 해 8월 기준으로 68,433명으로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고 김해지역에만 약 3,000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 무슬림 사역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영로 교회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선교사님을 모시고 김해

38) Calvin, John.『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1), 1권, 108.

지역에서 우즈베키스탄 무슬림 선교를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김해지역에 무슬림 인구들이 급증함에 따라 김해를 중심으로 뜻있는 성도들이 무슬림 선교학교의 개설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지난 해 말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는 난민과 이주민 및 이슬람 문화의 충격 가운데 생긴 요인도 크다. 이슬람 종교와 문화 이해의 부족 가운데 발생한 요인도 있다. 최근 외국인 유학생과 내국인 학생과의 충돌도 곳곳에 일어나고 있다. 필자가 속한 한국 OMF의 국내 디아스포라 사역에 외국인 유학생들과 국내 학생들 간의 충돌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위한 기도 제목이 나왔다. 이런 유사한 일이 한국의 미래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함께 그것에 맞는 세밀하고 치밀한 종합적 대책이 대학과 한국교회에 필요하다. 전 세계에서 가장 국제화되었다는 유럽의 프랑크푸르트나 암스테르담보다 더 많은 다양한 나라와 종교와 문화가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교연구가 세계화와 국제화에서 더 필수적 이 되었다. 국제정치학자, 종교학자와 선교학자들에 의하면 종교의 부활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한다. 국제정치학자로서 <문명의 충돌>의 저자 사무엘 헌팅تون은 “이슬람의 부흥”을 지적하고 있다. 이슬람의 부흥은 인구증가와 맞물려 일어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이슬람의 출현(AD600년대) 이후 현재까지 1400년 동안 서구와 이슬람의 충돌에서 생긴 역사를 회고해 볼 때 이런 종교충돌이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종교연구 특히 전 세계 77억 인구 중 17억에 해당하는 이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동안 세계사는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그리스와 로마를 중심한 서구의 역사와 중국을 중심한 동양의 역사에 편중했지만 17억에 이르는 이슬람 역사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팔레스타인 출신 컬럼비아 대학 교수였던 에드워드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sup>39)</sup> 저작을 통해 오리엔

트 학 연구 촉진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세계화·국제화·다문화 시대에 국내 대학과 신학대학원에 여러 형태의 종교 및 이슬람 연구소가 설립되어 좀 더 객관적이고 심층적 연구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와 교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부·울·경 지역에 종교 및 이슬람 연구소 설립이 긴급하다.

## 9. 무슬림에 대한 기독론적 선교

무슬림 선교에서 중요한 관점은 기독론적 선교이다. 기독론적 선교는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과 같이 전하는 방법도 십자가의 희생적 순교적 선교이다. 무슬림 선교자는 선교사들에게 기파 지역이다. 이유는 한국에서 볼 때 거리도 멀고 경비도 더 많이 들고 위험하고 무섭고 죽을 수도 있고 가족들이 반대 할 수도 있고 열매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서 선교사들의 이슬람지역 참여율이 4%<sup>40)</sup>에 불과하다. 국제 선교단체나 국내 선교단체의 무슬림 권 선교사의 사역 통계도 이 사실을 잘 보여준다.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의 중요한 패턴인 생산성 및 효율성에 기초해서 교회가 선교한다면 무슬림도 그런 시각에서 할 수 있다. 하지만 교회의 선교는 손해가 되어도 위험해도 열매가 없고 죽을 수 있어도 주님의 선교명령에 따라 어디든 가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무슬림들에 대한 위험한 현실은 직시하되 그들에 대한 접근은 때로는 순교하더라도 적극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 어떤 위험이 오더라도 무슬림들에 대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한다. 위르겐

39) 에드워드 사이드, 『오리엔탈리즘』, 박홍규역, (서울: 교보문고, 2015).

40) 키스 스와틀리 편저, 『인카운터 이슬람』, 정옥배 옮김, (서울: 예수전도단, 2008), 59.

몰트만이 지적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기독론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를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회생적 순교적 제자도적 삶을 살아야 한다<sup>41)</sup>.

## 10. 결론

필자는 이슬람의 과학적 성취 및 오스만 투르크의 역사를 통해 이슬람이 야만적 폭력적 종교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혹자는 이런 내용에 불편해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슬람의 폭력성과 함께 이슬람의 궁정적 공현도 볼 수 있는 균형적 시각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슬람의 놀라운 업적과 역사를 아는 가운데 무슬림들을 만나서 그들의 궁정적 역사를 인정하면서 존중하여 여기는 마음으로 접근할 때 무슬림들도 그들의 역사를 존중하는 가운데 그들의 자존감과 함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지 않을까.

세계화와 지구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현실 가운데 국내에도 20만 명이 넘는 무슬림들이 살아가고 있다. 그 중 김해에만 우즈베키스탄인들이 3천명거주하고 있다. 북아프리카에서 온 무슬림, 중동에서 온 시리아 무슬림 난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동남아시아 무슬림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 온 무슬림들이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오늘 한국과 세계에 이슬람에 대한 혐오와 부정적 사고가 창궐하는 때 이슬람 및 무슬림을 우리 기독인들은 어떻게 보고 해야 하는가? 이슬람에 대한 이상적 이미지도 피하고 악마적 이미지도 피하고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이슬람을 보아야 하는데 그렇게 본다는 것이 쉽지 않다. 우리의 객관적인 지식도 언제나 자신의 편견과

주관에 영향을 받고 작동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무슬림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의 이웃인 것만큼은 확실하다. 무슬림을 포함한 타종교인에 대한 케이프타운 선언문을 다시 본다. “우리는 온유하되 그저 순진하지는 않으며 분별하되 쉽게 속지는 말며, 위협 앞에서 깨어있지만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부름받았다”<sup>42)</sup>. 이슬람 포비아로 두려움에 지배되어 그들에게 접근하는 것도 두려워해서 피하는 어리석음은 피해야 하겠다.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전능성에 기초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소망으로 가지고 무슬림을 향해 전도해야 하겠다. 선교학자 후켄데이크(J. C. Hoekendijk)는 타 종교인들에 대해 강압과 부적절한 승리주의적 정신에 대항하여 “전도란 공손한 겸손과 기대하는 소망으로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것이다. 겸손으로 기다리는 까닭은 우리가 뿌리는 씨가 죽어야하기 때문이고 소망으로 기다리는 까닭은 하나님이 씨를 활성화시켜서 적절한 줄기를 주시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sup>43)</sup>

41) 위르겐 몰트만, 『예수 그리스도의 길』, 김균진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42) 한국로잔위원회, 『케이프타운선언문』, 최형근 역, (서울: IVP, 2014), 90.

43) 존 스토퍼 크리스토퍼 라이트, 『선교란 무엇인가』, 김명희역, (서울: IVP, 2018), 219.

## 참고문헌

- 나나미, 시오노. 『로마 멸망이후의 지중해 세계 상·하』, 김석희 옮김, 서울: 한길사, 2015.
- 러셀, 베트란드. 『서양철학사』, 서상복 역, 서울: 을유문화사, 2014.
- 로빈슨, 프랜시스 외 지음, 『케임브리지 이슬람사』, 손주영외 옮김, 서울: 시공사, 2014.
- 루이스, 버나드. 『이슬람 1400년』, 김호동역, 서울: 까치, 2013.
- 루터, 마르틴. 『탁상담화』, 이길상 역,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19.
- 리버링 루이스, 데이비드, 『신의 용광로』, 이종인 옮김, 서울: 책과 함께, 2010.
- 몰트만, 위르겐. 『예수 그리스도의 길』, 김균진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 밀리오리, 다니엘 L. 『기독교 조직신학 개론』, 신옥수 역, 서울: 새물결출판사, 2016.
- 바디우, 알랑. 『우리의 병은 오래전에 시작되었다』, 이승재 역, 서울: 자음과 모음, 2016.
- 사이드, 에드워드. 『오리엔탈리즘』, 박홍규역, 서울: 교보문고, 2015.
- 스와틀리, 키스 편저, 『인카운터 이슬람』, 정옥배 옮김, 서울: 예수전도단, 2008.
- 스튜어트, 디즈몬드. 『이슬람』, 서울: 타임라이프, 1979.
- 암스트롱, 카렌. 『이슬람』, 장병옥 역, 서울: 을유문화사, 2012.
- 유재원, 터키, 『일 만년의 시간여행』, 책문, 2013.
- 이병수, 『난민선교』, 서울: 한국선교연구원, 2019.
- 전국역사교사모임 지음, 『터키사』, 서울: Humanist, 2012.
- 지젝, 슬라보예. 『새로운 계급투쟁』 김희상 옮김, 서울: 자음과 모음, 2016.
- 컬버 조나단 E. 지음, 『이스마엘』, 제이콥 조 옮김, 서울: Insiders, 2015.
- 쿼트트, 도널드. 『オス만 제국사』, 이은정 역, 서울: 사계절, 2008.
- 쾰, 한스. 『이슬람: 역사·현재·미래』, 손성현 옮김, 서울: 시와 진실, 2012.

- 크리스토퍼 라이트, 존 스토톤 『선교란 무엇인가』, 김명희역, 서울: IVP, 2018.
- 터커, 루스. 『선교사 열전』, 박해근 역,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6.
- 한국로잔위원회, 『케이프타운서약』, 최형근 역, 서울: IVP, 2014.
- 헌팅تون, 사무엘. 『문명의 충돌』, 이희재 옮김, 서울: 김영사, 1998.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1.